

역법에서의 시진(時辰) 설정에 대한 타당성 논의

이청하*, 신순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A Feasibility Study on the Hour Setting in Almanac

Cheong-Ha Lee*, Sun-Ok Shin**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명리학과 기문둔갑에서 사용하는 사주(四柱)라는 동양의 시간 개념을 재정립하고 특히 시주(時柱)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화를 위해 출생 지역에 따른 진태양시의 사용, 야자시(夜子時)와 정자시(正子時) 중 정자시의 선택, 태시(胎時)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 등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한국 사회에서 통념적 시간의 사용은 동경시를 표준시로 삼고, 자정 0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역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통용성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인 내가 태어난 그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내 명(命)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내가 태어난 장소의 경도를 사용하여 정확한 나의 시진(時辰)을 결정해야만 하고, 우주 에너지의 흐름은 반 시진, 즉 1시간은 앞서 '기미와 징조'가 발생하므로 역술과 명리학에서 오랜 기간 논쟁의 화두가 되어왔던 간지시법 중 야자시와 정자시의 선택 문제는 정자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진과 시주의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문둔갑의 포국을 통한 시진 조정법을 활용하여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과거 살아온 인생을 날짜와 시간별로 수집한 후 각 인생 사건의 발생 시기가 정확한지를 기문둔갑 해단법으로 확인해 보았다.

주제어 명리학, 진태양시, 야자시, 기문둔갑, 시진 조정, 운곡기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Eastern time, which is used in Myeongliology and Kimun-dungap, and to discuss the use of real-time of the sun according to the birth area, the selection of real-jasi between night-jasi and real-jasi, and the exact meaning of birth time. The conventional use of time in Korean society uses Tokyo as standard time and uses a time system in which a new day begins at midnight.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not social universality but the time and space of the universe where I was born, which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should be the standard of my fate, so I have to use the longitude of the place where I was born to determine my exact time. Also it is argued that real-jasi should be selected for the selection problem of night-jasi and real-jasi, which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topic in Myeongliology, because the flow of cosmic energy is signaled an hour ahead. To secure the validity of setting such time,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time adjustment method through the spread of Kimun-dungap.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analysis subjects, the lives of the past were collected by date and time, and then Kimun-dungap checked whether the timing of each life event was accurate.

Key Words Myeongliology, real-time of the sun, night-jasi, Kimun-dungap, Time adjustment, UngokKimun.

Received 22 Feb 2023, Revised 07 Mar 2023

Accepted 16 Mar 2023

Corresponding Author: Sun-Ok Shi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leif3713@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이 연구는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문둔갑(奇門遁甲)의 학술적 요건으로서 사주(四柱)라 불리는 동양의 시간 개념을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주란 연주(年柱), 월주(月柱), 일주(日柱), 시주(時柱)라는 4개의 시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시주(時柱)에 관한 객관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준의 정오(正誤)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 표준시(標準時)에 해당하는 경도(經度) 기준지와 임의의 세 곳의 장소를 선정하여 출생한 태아(胎兒)의 시주(時柱)를 분석하고, 시주 변화를 체득(體得)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시주(時柱)에 대한 역사적 시각과 활용, 그리고 전통적 간지기사법(干支紀時法)을 검토하면 이는 야자시(夜子時)와 조자시(朝子時)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기존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시주(時柱)의 중요성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확립하고 한 가지로 다시금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주(宇宙)의 시공간 개념에 해당하는 태어난 지역의 공간적 위치에 따른 시주의 변화를 정립하고, 시간적 경계에 해당하는 자시(子時)를 야자시와 조자시로 나누어야 하는지, 하나의 정자시(正子時)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작업이다. 표준시에 대한 문제와 야자시에 대한 문제 모두 명리학계에서는 오래된 논쟁거리였으며, 한편 오랫동안 알면서도 간과해 놓고 보내온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바로잡고 정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태아의 출생 시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태아의 출생 시는 산모에게서 출생하여 태아의 탯줄이 잘리는 시각을 의학적으로는 기록에 남기고 있다. 하지만 명리학적 관점에서 태아가 첫울음을 터트리는 시각이 처음으로 천기(天氣)를 얻고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임을 논술하고자 하며 그 관점을 비교해 보았다.

명리학(命理學)의 연월일시 사주 중 시주(時柱)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만태·신동현(2014)은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관한 논점 고찰』¹⁾에서 명리학계의 큰 화두인 야자시(夜子時)와 조자시(朝子時)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의미 있는 비교 논점

을 제시하고 있어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송병섭(2018)은 『子平命理學의 子時에 관한 研究』²⁾에서 자평 명리학의 역법은 간지력법으로 십이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시주법은 자시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해시에 하루가 마감되는 십이시진법(十二時辰法)으로 시주를 정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야자시와 조자시의 성립과 발전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류명성(2020)은 『朝鮮 後期 千歲曆의 曆法 原理 研究 - 正祖 時憲曆 『千歲曆』 중심으로』³⁾에서 조선 정조대 제작된 『시헌력(時憲曆)』⁴⁾을 바탕으로 한 『천세력(千歲曆)』⁵⁾을 통해 역법 원리를 분석하였고 과학적 우수성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2. 시간(時間)과 시주(時柱)

2.1 우주(宇宙)의 시간

기문둔갑(奇門遁甲)을 비롯한 대부분 역술(易術)의 기본 출발점 혹은 기준점은 시간이다. 사주(四柱)라는 것도 년·월·일·시의 시간적 데이터에 대한 기본 인식과 개념이다. 특히 기문둔갑에서는 시간의 적용이 정확해야만 실제 본인의 확실한 명국을 찾아 해단(解斷)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요건이 된다.

동양의 운명예측은 크게 명(命)과 점(占)으로 나뉘며, 그 밖에 수상(手相), 관상(觀相), 성명(姓名) 등이 있다. 명(命)에는 자평학(子平學)이라고도 불리는 명리학(命理學)과 하락이수(河洛理數), 자미두수(紫微斗數), 기문둔갑(奇門遁甲), 태을신수(太乙神數)가 있으며, 점(占)에

2) 송병섭, 『子平命理學의 子時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서경대학교 대학원, 2018.

3) 류명성, 『朝鮮 後期 千歲曆의 曆法 原理 研究 : 正祖 時憲曆 『千歲曆』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2020.

4) 조선시대 1653년 이후 1910년까지 한국에서 쓰인 역법. 서양 신부 탕약망(湯若望) 등의 편찬으로 청나라와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었던 역법이다. 1645년부터 청나라에서 시행하여 도중에 두 번의 개편을 거쳐서 청나라 말까지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653년(효종 4)부터 조선 말까지 이를 중용하였다. 1644년 청나라의 세조(世祖)가 중국을 통일하자 명나라 말에 『숭정역서(崇禎曆書)』 137권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탕약망에 이를 정리, 개편할 것을 명하여 『신법서양역서(新法西洋曆書)』 103권을 편찬케 하여 그 다음 해부터 시헌력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

5) 『千歲曆』, 조선 정조 때 관상감에서 새로 편찬한 역서. 1777년(정조1)부터 1886년(고종23)에 이르는 110년간의 역(曆)을 기록한 책이다. 1782년에 정조는 관상감에 명하여 『백중력(百中曆)』을 초대로 하여 1777년을 기점으로 한 100년간의 역을 미리 계산하여 편찬하게 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10년간을 계산 보충하게 하였다.

1) 김만태, 신동현,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관한 논점 고찰』,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Vol. 59,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4.

는 육임(六壬)과 육효(六爻)가 대표적이며 그 외 파자점(破字占), 매화역수(梅花易數) 등이 있다.

점복(占卜)은 한 사람의 총체적인 운명과 1년 혹은 1월 등 시간의 흐름을 논할 수는 없고, 점을 펼치는 그 시각에 고려된 특정한 질문에 대한 예측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길흉화복을 살피기 위해서는 명리(命理)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단, 점복 나름의 효용성은 탄생 시각을 정확히 모른다가나, 인간이 아닌 동식물과 사물에 대한 질문 등 명(命)으로 해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괘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명리학(命理學)은 사람의 타고난 운명(運命) 전체의 속성을 꿰뚫어 보며, 때와 시기의 일정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살필 수 있고 추길피흉(趨吉避凶)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시간의 정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時)를 잘못 적용하면 기문둔갑을 비롯한 명리학에서는 다른 사주를 가지고 간명을 하는 것이 되므로 적중률이 떨어지고 올바른 해단을 할 수 없다. 인간이 실제로 인식하는 시간, 즉 우주(宇宙)의 시간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역법으로 계산하고 사용해 왔는지를 살펴 보면서 운명학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시주의 문제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2.1.1 태양력(太陽曆)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은 양력(陽曆)이라고 불리는데,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1582년에 이전의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 이 역법(曆法)을 시행했기에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른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제정한 율리우스력은 4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는 윤년(閏年)을 두었기 때문에 율리우스력에서 1년의 평균 길이는 365.25일이 된다. 이는 천문학(天文學)에서 일회귀년(一回歸年) 365.2422일보다 0.0078일(11분 14초)이 길어서 128년마다 1일의 편차가 발생한다.”⁶⁾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역법으로 1582년 2월 24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율리우스력의 400년에서 3일 - 세 번의 윤년(閏年)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했다. 그레고리력의 1년 길이는 365.2425일이므로 천문학의 회귀년보다 0.0003일(26초)이 길고 약 3,300년마다 1일의 편차가 발생한다.”⁷⁾

6) 권갑현, 『명문 컴퓨터 절기 만세력』, 명문당, 2020, 7쪽.

이러한 태양력의 기원을 보통은 서양의 역법에서 찾고 있지만, 우리 선조인 동이족(東夷族)이 아주 정밀한 태양력의 역법(曆法)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사실은 경이로운 것이다. 태백일사소도경전(太白逸史蘇塗經典) 본훈(本訓)에 보면 “천부경(天符經)은 환국시대(桓國時代)에는 구전으로 전하여 왔던 것을, 그리고 환웅천황(桓雄天皇)의 배달국시대(倍達國時代)에 신지혁덕(神誌赫德)이 녹도문(鹿圖文)으로 기록한 것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다시 이두문(吏讀文)으로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기원전 15세기의 갑골문자(甲骨文)와 환역(恒易)도 배달국 5대 환웅천왕(桓雄天王)의 열두째 아들인 복희(伏羲)씨가 우사(雨師) 관리로 있을 때 천부경의 원리에 따라 환역(恒易)과 팔괘(八卦)를 창작했다고 전해진다. 환역(恒易)이 그 후 서쪽으로 전하여 주나라의 주역(周易)이 된 것이다. 동이족이 사용했던 칠성역(七星曆)이라 부르기도 하는 칠회제신역(七回祭神曆)은 7일 동안 천신(天神), 일신(日神), 수신(水神), 화신(火神), 목신(木神), 금신(金神), 토신(土神)에게 7일간 차례로 제사를 지내는 데서 유래했다. 이를 통해 동이족은 수리(數理), 칠정운천도(七政運天圖), 삼황내문경(三皇內文經), 역법(曆法) 등을 창작했다. 배달시대가 세수(歲首)를 계해(癸亥)로 하였으나 오대단군시대(五代檀君時代)에 와서는 그 세수(歲首)를 갑자(甲子)로 개정하고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정했다. 이는 기원전 2096년에 있었던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세밀하고 정확한 역법을 창작하였음을 볼 때 동이족이 고도의 문화 수준을 이루었다는 것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⁸⁾

2.1.2 태음력(太陰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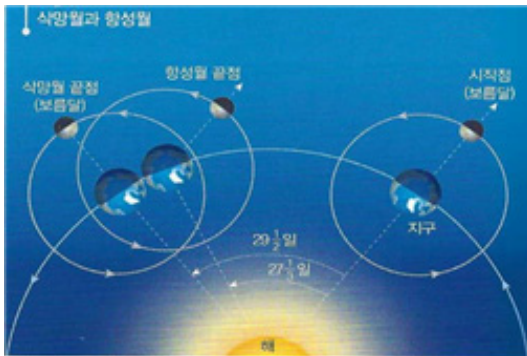
음력(陰曆, lunar calendar)에서는 1개월을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 합삭(合朔)으로부터 다음 합삭(合朔)까지로 하고 합삭(合朔) 일을 초하루로 한다. 달의 합삭주기(合朔週期)는 약 29.53088일이므로 음력 1개월은 대체로 29일과 30일이 반복된다. 한 달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29일인 달을 ‘작은 달’이라 하고, 그리고 30일인 달을 ‘큰 달’이라 한다. 따라서 음력 12개월은 354.3671일이

7) 권갑현, 『명문 컴퓨터 절기 만세력』, 명문당, 2020, 7쪽.

8) 이을형, 4천 년 전 BC2096년 동이족 1년...365일 5시간 48분 46초, 스카이데일리, 2015-03-07,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2715.

되며, 달의 주기에 따른 12개월을 1년으로 한 것이 태음력(太陰曆)이다. 태음력의 길이는 태양력(太陽曆)의 길이인 365.2422일에 비해 10.8751일이 짧아서 3년이 지나면 음력(陰曆) 날짜는 양력(陽曆) 날짜와 약 33일 즉 한 달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날짜와 계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음력에서는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19년마다 7회씩 윤달을 두고 이런 윤년(閏年)의 경우는 1년을 13개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음력을 ‘태양태음력’이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바로 이 태양태음력이다.

기문(奇門)에서도 12개월은 음력을 기준으로 이용하지만 정확한 간지기월법(干支紀月法)은 태음태양력의 24절기(節氣) 즉, 12절기와 12 중기로 이루어진 절기력(節氣曆)으로 입춘(立春) 절기인 인월(寅月)⁹⁾을 정월로 하여 다음 절기 간을 한 달씩 이동한다.



〈그림 1〉 삭망월과 항성월

자료 출처: 박석재, 『해와 달과 별이 ... 지는 원리』, 동아 엠앤비티, 2019.

2.1.3 절기(節氣)와 중기(中氣)

절기(節氣)를 기준으로 양둔(陽遁)은 양생어자(陽生於子)라는 동지(冬至)부터 망종(芒種)을 지나 음생어오(陰生於午)라는 하지(夏至) 전날까지를 칭하고, 음둔(陰遁)은 하지(夏至)부터 대설(大雪)을 지나 동지(冬至) 전날까지를 이른다.

한 달에서 5일을 1후(候), 3후(候)인 15일을 1기(氣)라 하여 이것이 기후(氣候)를 나타내는 기초가 된다. 1년을 12절기(節氣)와 12중기(中氣)로 나누고 이를 보통

24절기(節氣)라고 하는데, 절기는 한 달 중 월초에 해당하며, 중기는 월중에 해당한다.¹⁰⁾

19년마다 7회씩 윤달을 두는데 그 윤달이 오는 원리는 바로 ‘무중치윤법(無中治閏法)’이다. 무중치윤법이란 중기(中氣)가 없는 달을 윤달로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보통의 한 달은 달 중에 12절기와 12중기가 포함되는데 어떤 달에 절기는 포함되어 있는데 중기가 포함되지 않을 때 그달을 윤달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기문둔갑에서는 기(氣)와 후(候)가 기본 포국(布局)에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24절후(節候)’에 대한 언급은 우리 민족의 상고사(上古史)의 보배인 환단고기(桓檀古記) 배달국(倍達國) 시대에도 나온다.¹¹⁾

2.1.4 시진(時辰)과 시주(時柱)

명리학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해야만 본인의 명조를 정확히 해단할 수 있으므로 시간 개념은 중요하다. 환기(桓紀) 9220년, 단기(檀紀) 4356년, 서기(西紀) 2023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동경(東經) 127.5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정확히는 일본의 표준시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차를 없애고자 사용하는 경도(經度) 기준이다.

그런데 역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사회적 통용성이 아니라 우주(宇宙)의 중심인 내가 태어난 그 우주(宇宙)의 시간과 공간이 내 명(命)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태어난 장소의 경도(經度)를 사용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간과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나 본인의 시진(時辰)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로는 똑같은 13시 30분에 태어난 아이의 시진(時辰) 시주(時柱)라고 할지라도, 독도의 동도(東島)와 천안의 국제뇌교육 대학원, 서해안의 가거도 이렇게 각각 세 장소에서 한국 표준시 모월 모일 13시

10) 권갑현, 『명문 컴퓨터 절기 만세력』, 명문당, 2020, 9쪽.

11) 태호 복희는 5,600년 전, 배달의 5세 태우의 환웅의 막내아들이다. 복희는 하도(河圖)를 그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수의 체계를 세웠다. 중이 한 장에 다 그려지는 이 도표 하나에서 음양오행의 원리가 나오고, 공간과 시간의 순환 원리가 나온 것이다. 복희씨는 또한 팔괘를 그려 『주역』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인간이 천지 시공간의 변화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의 해시계로 일컬어지는 규표(圭表)를 발명하고, 24절후(節候)를 발견하였다. 복희씨는 한마디로 동양철학의 아버지요 인류문명의 창시자이다. (계연수 편저, 이유헌 현토,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2012, 88쪽. 참조)

9) 유안 저, 안길환 역, 『淮南자(淮南子)(上)』 『천문훈(天文訓)』, 명문당, 2021, 146~148쪽.

30분(기준시간)에 세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세 아이의 사주팔자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독도의 동도(東島)는 기준시간에서 17분 29초 일찍 태양이 그 지역 자오선(子午線)을 지나가고, 천안의 국제뇌교육 대학원에서는 태양이 1분 13초 늦게 그 지역 자오선을 지나가고, 서해안의 가거도는 9분 29초 늦게 그 지역이 정오(正午)가 된다. 그러므로 가거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오시(午時)가 되고, 천안에서 태어난 아이도 오시(午時)가 되지만, 독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시(未時)가 됨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명리 상담의 경우 태어난 지역을 확인하지는 않는 실정이며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가 동경시인 것은 알기에 -30분 정도만 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대한민국 시간 13:30분에 설계탄생				
장소	가거도	국제뇌교육	청주공항	독도동도
경도	125.12801	127.19556	127.50000	131.86999
경도	2.37199	0.30444	기	-4.36990
시차(초)	569	73	준	-1,049
시차	9분29초	1분13초	시	17분29초
시진	午시	午시		未시

이승만 정권은 1954년 3월 21일 대통령령으로 동경 127도 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정했다가, 1961년, 135도로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2> 경도 127.5도 세 곳 장소에서의 시차 계산

한 시진(時辰)이 달라지면 사주(四柱) 중 시주(時柱) 두 글자가 달라지는 것이니 간명 대상인 출생자의 운명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곡기문(雲谷奇門)에서는 시(時)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담할 때 출생 지역을 꼭 확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해단을 수행하고 있다. 정리하면 시진(時辰)이란 진태양시(眞太陽時)를 말하는 것이므로 태양이 남중(南中)하는 시각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기문둔갑(奇門遁甲)에서는 시간을 정하는 시주정법(時柱定法)의 중요함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는 점을 밝힌다.

대한민국 지도상 경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독도의 동도는 131° 87", 청주시 공항은 127° 30", 압록강 서쪽은 124° 20"을 보인다. 즉, 동서 최극단 간의 경도 차이가 7° 67"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동쪽 최극단과 서쪽 최극단의 경과 시간은 약 3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표준시(標準時)에서 전 1각(刻), 후 1각(刻)은 앞뒤로 약 15분의 시간적 간격을 보인다.

즉 한국 표준시로 홀수 시각의 15분~45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정확한 우주의 시간과 계산을 통해 명조를 세울 필요가 있다.

다시 확인해 보면, 대구에서 모일 모일 13시 28분에 태어난 사람은 명리 간명시 일반적으로 오시(午時)로 두고 보지만, 우주 시간의 시주 개념으로 볼 때 미시(未時)라고 해야 한다. 대구의 시청을 포인트로 진태양시(眞太陽時)를 계산하면 정오(正午)가 표준시 12시 25분에 걸처지기 때문에 13시 25분이 지나면 다음 시진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면 우주(宇宙)의 중심(中心)인 나는 태어난 그 우주의 시간과 장소가 내 명(命)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위치의 경도(經度)를 꼭 확인하고 사회적, 보편적(普遍的)으로 사용하는 기준의 표준시와 비교한 후 정확한 계산을 통해 나의 시진(時辰)을 결정해야 한다.

2.2 야자시(夜子時)와 조자시(朝子時)

역술과 명리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오랜 기간 논쟁의 화두가 되어왔던 간지시기법(干支紀時法)과 야자시, 조자시에 대한 견해를 김만태·신동현은

"천문학적 관점에서는 야자시설이 더욱 타당하다. 그러나 명리학에서 채용하고 있는 간지력법은 천문학적 의미보다는 점성술적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인 세수(歲首)도 초입절(初入節)을 분계로 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시 초각(初刻)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정자시설이 명리학적 입장에 보다 부합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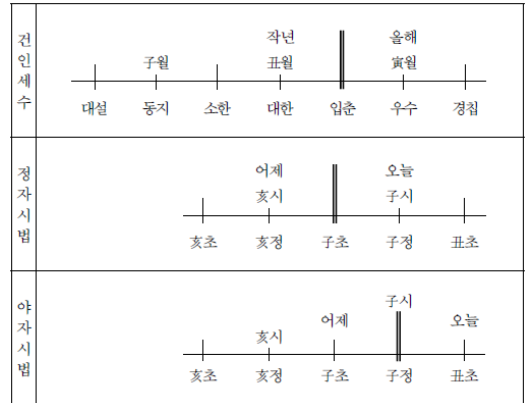
라고 학술지를 통해 주장하였다. 야자시 논쟁이란, 자초(子初), 즉 야자시(夜子時)는 23시에서 00시 자정까지(한국 기준 23:30~00:30)를 말하며 자정(子正), 즉 조자시(朝子時)는 00시에서 01시까지(기준 00:30~01:30)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의 일주(日柱)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 지속되었다. 야자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시진의 자시(子時)를 둘로 나누어 앞의 자초(子初)는 전날 일진(日辰)으로 보고, 뒤의 자정(子正)은 다음 날 일진(日辰)으로 보는 것이다.

12) 김만태, 신동현,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관한 논점 고찰」,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Vol. 59,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4, 429~430쪽.

그래서 일주를 결정할 때, 자시(子時)를 제외한 시진에 태어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자정(0시) 전 한 시간(표준시로는 30분) 안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혼선이 발생한다. 명조의 기준인 일주(日柱)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야자시(夜子時)¹³⁾에 대한 기록이 태조실록 14권 - 태조 7년 8월 26일, 영조실록 2권 - 영조 1년 12월 4일, 정조실록 53권 - 정조 24년 1월 12일에 3차례에 걸쳐 기록이 남아 있다.

현재 전 세계 그리고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하루의 시작은 매일 0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역학적 입장에서는 우주의 에너지 흐름을 받 시진, 즉 한 시간을 앞서 ‘기미(機微)와 징조(徵兆)’¹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세계적, 사회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방법이 이미 정립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운명학적 입장에서는 하루의 기운이 한 시간 앞서 오는 기미와 징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김만태·신동현(2014)의 정자시법에 동의하고, 명리학과 기문둔갑에서는 야자시법 보다는 정자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문둔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시에 대한 적용법으로서 정자시법을 사용해 왔으며 운곡기문학에서도 우주의 기운이 자시(子時)에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하지 않고 자시(子時)라는 하나의 시진에 오늘의 일진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 제도상으로는 야자시법을 써야 하므로 이를 체(體)로 삼지만, 운명 학술적으로는 정자시법을 실질적인 사용으로 삼아 용(用)해야 한다. 자시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확실하게 재정립하고 실체와 사용이라는 체용(體用) 관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림 3〉 건인세수(建寅歲首)와 자시법의 개념 비교
출처 김만태(金萬泰), 신동현(申東鉉),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 고찰』,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4, 458쪽.

2.3 태시(胎時)

일반적으로 동양철학에서는 출생의 시각, 즉 태시(胎時)를 신생아가 산모(產母)의 몸에서 나와 ‘땃줄을 잘라 분리되는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아이가 끈(坤, 어미)이라는 땅의 지기(地氣)에서 독립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태시(胎時)에 대하여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시는 아이가 태어나서 첫울음을 내지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다분히 상식적인 고려 사항이다. 그렇다면 운명학적으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근거의 이유는 인간, 아니 모든 동물은 호흡을 통해 천기(天氣)를 받아들인데, 호흡으로 천기를 득하지 못하면 몇 분만 넘어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지기(地氣)를 받아들인데, 음식으로 지기를 득하지 못하면 며칠은 버티지만, 생명 유지의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기보다는 천기가, 땅보다는 하늘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며 곧명(坤命)보다 건명(乾命)이 인류 역사를 주도해 온 것도 사실이다.

태시(胎時)는 수화기제(水火既濟)에서 매듭을 짓고, 화수미제(火水未濟)로 넘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람과 퇴(1978)의 ‘생일’이라는 노래를 보면

“은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젖히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다. 두리둥실 귀여운 아기 하얀 그 얼굴이 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던 바로 그

13) 文和奔詣問曰：上體若何？石柱曰：上疾篤，今夜子時，欲避病于西小涼亭。(『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己巳 1번째 기사 -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남은·심효생 등이 숙정되다.)

14) 數라는 것은 같은 사물의 기미가 有와 無, 單과 多의 운동하는 모습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字典』에서 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數’에는 ‘기미(幾微)’라는 의미와 ‘계산(計算)’이라는 의미와 또는 ‘세밀(細密)’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징조(徵兆)의 계수(計數)를 말하는 것이다. (한동석,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사, 2013, 192쪽. 참조)

모습이란다. 하늘은 맑았단다 구름 한 점 없더란다. 나의 첫울음 소리는 너무나 꾸 컸더란다. 꿈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맑더니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 이란다.”¹⁵⁾

이 노래에서는 태어나는 순간을 의미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태시를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짓히는 소리” 즉, 울음을 낸다는 것은 선천(先天)에서 후천(後天)으로 변화하여 첫 숨을 쉬어 천기(天氣)를 득한다는 것이므로 ‘첫울음의 소리를 내는 그 시각’을 태시(胎時)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산부인과 전문의에 따르면 “땃줄을 자르기 전에 울음을 내는 신생아(新生兒)도 있고, 자른 후에 우는 신생아도 있다. 그런 시간적 개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태아가 건강히 태어나 숨을 쉬어 살아 있다는 것이 큰 의미이다. 울음을 터트리는 시각과 땃줄을 자르는 시각의 차이는 그리 길지 않은데, 또 땃줄을 자르기 전에는 땃줄로 산소와 영양분이 순환되고 있어서 숨을 쉬지 않아도 그 잠깐의 순간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말한다.

3. 시진(時辰) 조정 사례분석

곧명으로 양력 1962년 11월 30일 23시 20~30분경에 태어난 대상자는 지금까지 壬申일 辛亥시로 명조를 세우고 상담을 받아왔다고 한다. 단, 살아오는 동안 사주와 대, 세운에서 징후로 드러나는 큰 인생의 변화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그래서 사주 상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번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 인물의 명조는 10여 분의 차이로 壬申일 辛亥시와 癸酉일 壬子시 두 명조 사이에서 나뉘게 되는 시간대에 태어났다. 한 시진(時辰)의 차이로 일진(日辰)이 바뀌는 현상은 사주 명조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운곡기문(雲谷奇門)에서는 시진(時辰) 조정기법을 사용해 확실한 출생 시각을 추론(推論)할 수 있다.

시진 조정법의 원리는 과거 살아온 인생을 날짜와 시간별로 수집한 후 기문 포국(布局)을 통해 각 인생 사건의 발생 시기가 정확한지를 기문 해단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정리한 삶의

변동성이 컸던 인생 사건과 양력 시간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본인의 결혼. 25세. 양력 1986년 11월 25일 午時.
- (2) 첫째(女) 출생. 26세. 양력 1987년 10월 13일 酉時.
- (3) 둘째(子) 출생. 28세. 양력 1989년 12월 9일 巳時.
- (4) 부친 유고. 17세. 양력 1978년 3월 25일.
- (5) 시부(媿父) 유고. 56세. 양력 2017년 5월 1일.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일상사가 발생했던 시간을 운곡기문으로 포국(布局)하여 개별적으로 해단(解斷)하며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분석 대상자의 사주 명조가 자시(子時)가 옳은지, 해시(亥時)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시진 조정을 진행해 보았다. 다섯 가지의 일상사를 통한 운곡 기문의 원국비기(元局秘記)와 신수비기(身數秘記)의 해단 풀이의 심층분석(深層分析)은, 우리가 역학(易學)에서 내담자 운명을 예측하는 데 출생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시켜, 추길피흉(追吉避凶)의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을 해소(解消)해 줄 것이다.

3.1 결혼. 25세 양력 1986, 11 25. 午時.

3.1.1 결혼 25세 元局秘記 布局

光 音 响 画 命 歲 月 1986年 25 歲 10 月 時局					
성명 해자시		성별 陽女			
나이 62歲		陰 1962年 11月 5日 子時			
생일 陽 1962年 12月 1日 0:59		陰 1962年 11月 5日 子時			
時 日 月 年	70 60 40 30 20 10 0	70 60 40 30 20 10 0	70 60 40 30 20 10 0		
四 子 癸 辛 壬 壬	大 運 甲 辰	丙 午	戊 申 酉 庚 戌		
柱 子 酉 亥 寅 黃	大 運 甲 辰	丙 午	戊 申 酉 庚 戌		
元命局(時局) . 小雪 中元 陰 八局 http://cafe.naver.com/489ag					
年時干 1-16 壬五世 11-24 甲子 甲戌 甲申 12-06 壬二父 生天直太絕景 門輔符陰命門 絶乙 年亡 (50-54) 墓乙 亡宮 (32-33) 日殺 劫宮 日馬 劫宮		月時干 11-11 乙十兄 11-23 乙七父 傷天九軒禍杜 門英天糧書門 壽壽日 劫馬 劫馬 劫馬 劫馬 劫馬 劫馬 劫馬 劫馬		日時干 11-14 丁七父 11-24 丁十兄 杜天九太生開 門肉地乙氣門 天年亡 乙七宮 生 亡馬宮宮 (71-77) 義 亡馬宮宮 (28-30)	
年支 1-15 癸六財 12-05 癸一財 休天騰天遊休 門冲蛇乙魂門 天 權 劫 (65-70) 死馬 劫 (31-31)		月時干 11-12 辛土兄 11-17 庚申 咸之丑 12-02 庚辰 庚辰 庚辰 日天 天 (51-59) 年日天 桃劫之 (34-41)		日時干 11-19 乙二十兄父 11-23 乙五一世 景天女天絶死 門柱武符體門 浴 年日天 亡馬 劫馬 劫馬 劫馬 劫馬 (45-47) (1-5)	
年支 1-10 戌一財 12-30 戌六財 開天太招歸驚 門任陰搖魂門 病日庚 劫 (90-90) 喪馬 劫 (6-11)		時支 11-18 丙八孫 12-03 丙九孫 驚天六攝天陽 門蓬台提宜門 壽壽日 亡 (78-85) 亡馬 劫 (19-27)		月支 11-08 庚三父 11-18 庚十孫 死天女青福生 門心虎龍德門 劫空 劫馬 (48-50) 亡馬 劫馬 (42-45)	
운곡기문기문통합 V11.3.0.0					

〈그림 4〉 25세 1986년 11월 25일 元秘 布局

15) 민재홍 작사, 민재홍 작곡, 가람과피 노래, “생일”, 제일 음반, 1978, 음반.

본 곤명의 남편은 8 卯木 官이 5 土 世와 8·5 卯·戌
합이 되어 남편이 된다.

9·1·5 申·子·辰 삼합, 日干 1 子水가 정인으로 8 卯木
官을 생을 하여 官印 世生을 하여吉하다.

결혼은 8 卯木 官이 되게 하는 1 子水 대운(31세)에 혼
인한다. 그러나 1 子水 대운(31세)보다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9·1·5 申·子·辰 삼합으로 하나의 체(體)가 된
9 申金 대운과 5 土 대운에 가능하나 그 중 적합한 나이
는 9 申金 대운(19~27세)이다. 9 申金 대운(19~27세)의
괘문성장에 “홍염살(紅艷殺)”¹⁶⁾이 있어 결혼에吉하다.

그럼 결혼을 하는 小運의 나이는?

9 申金 대운은 9·1·5 申·子·辰 삼합으로 1 子水가 된
가운데, 5 土가 오면 申·子·辰 삼합이 되므로 5 토의 25
세에 결혼을 하게 된다. 나이 소운 5 土 역시 1 子水로 變
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月運은?

나이 소운 25세 5 辰戌 土 역시 1 子水로 變하여 있는
가운데, 1 子水を 생을 하는 절기력(節氣曆) 10월인 乾宮
의 4 酉金과 坎宮 9 申金이 생을 하기에 가능하나, 9 申金
은 대운과 소운에서 이미 用하였기에, 4 酉金이 생을 하
여 結婚하는 10월 달이 된다.

그럼 日辰은?

節氣曆 10월인 乾宮의 4 酉金이 震宮의 1 子水로 생을
하여 震宮의 1 子水가 되는데, 그 일진은 11월 15일 癸亥
日, 11월 25일 癸酉日, 12월 5일 癸未日 중 變한 1 子水를
생을 하는 酉일로 11월 25일에 癸酉일 적에 婚姻을 한다.

그러니 大運도 小運도 月運도 日運도 모두 1 子水에
와 있다.

그럼 時辰은?

일진 1 子水가 중궁 암장수 10 토와 합이 된 것을 離
宮 7 午火인 午時로 생을 하여 결혼을 하는 시진이 된다.

3.1.2 결혼 25세 身數秘記 布局

The image shows a 3x3 grid of命理 charts for a 25-year-old in 1986. Each cell contains text, numbers, and symbols representing different aspects of fortune and destiny. The charts are arranged in a 3x3 grid with various annotations and colors.

〈그림 5〉 25세 1986년 11월 25일 身數 布局

身秘에서 결혼하게 되느냐를 살펴보면

25세 신비에서는 世 9 申金으로 남편은 중궁의 日干
인 7 午火 鬼가 남편이 된다.

남편인 7 火가 중궁의 日干 궁에 同宮이니 결혼이란
인연이 되어 있는 운이며, 그럼 그 월운은 중궁이기에 달
을 말할 수 없기에 7 火가 되는 鴻국수를 찾으면 3·7·5
인·오·술 삼합으로 3 寅木에 결혼할 수 있다. 離宮 淸반
3 寅木 절기력 午월에 결혼을 한다. 아마 이때 결혼에 관
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3 寅木은 乘旺은 했지
만 약하다. 그래서 이보다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은 3·6 寅
·亥 합생으로 乾宮 절기력 9월은 삼합으로 8 卯木으로 가
니 합생의 10월에 혼인한다.

이로써 元局秘記와 身數秘記가 같이 결혼에 대한 해
단이 어김없이 맞아 들어간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기존 기문학에서는 巽坤乾艮 4 維
方의 월별 定位는 艮宮 12월 1일, 巽宮 3월 4일, 坤宮 6월
7일, 乾宮 9월 10월에 정위(定位)하여 두 달을 같이 해단
을 하여 월별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雲谷 奇門에서
는 앞선 달은 습으로 뒤 달은 生으로 하여 확실하게 열두

16) 윤기용, 『운곡 기문둔갑 길라잡이』, 도서출판 생각 나눔, 2019, 475~476쪽 홍염살(紅艷殺)은 주색(酒色)과 풍류(風流), 노름 등을 주관(主管)하는 살(殺)이다. 도화살(桃花殺)은 다방면(多方面)이라면, 홍염살(紅艷殺)은 일대일(一對一)로 끈기와 열정적(熱情的)이고 번창(繁昌)하고 성공(成功)적인 기운(氣運)으로 에너지 [氣]가 넘치며, 인기(人氣)가 많아 사람을 끌어 들리는 힘이 있다.

달을 구분하여 해단한다. 이것이 운곡 기문의 우수(優秀)한 특징 중 한 가지다.

3.2 得女 26세 양력 1987-10-13 酉時

3.2.1 得女 26세 元局秘記 布局

〈그림 6〉 26세 1987년 10월 13일 元秘 布局

坤命의 첫 아이에 해당하는 巽宮 時干 2 火는 世와 日干이 9·1·5 申·子·辰 삼합이 된 상태의 9 申金과 2·9 巳·申합을 이루니 첫 아이와의 因緣이 있는 命造이다.

그럼 出産하는 大運의 나이는?

첫 아이의 時干 2 火를 合生을 하는 흉곡수는 3, 8 木이다. 3, 8목은 진궁 일간의 1 子수로부터 오니 이는 바로 9·1·5 申·子·辰 삼합의 9 申金 大運(19~27세)에 可能하다.

그럼 出産하는 小運의 나이는?

大運(19~27세) 9 申金은 9·1·5 申·子·辰 삼합으로 1 子수로 가고 1 子水는 中宮 暗藏數 10 土로 合을 하고 10 土는 6·8·10 亥·卯·未 삼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9 大운은 中宮 8 卯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8 卯木을 생을 하는 것은 6 亥水와 1 子水이니 1 水는 결혼 전이고, 用하지 않는 6 亥水의 나이 26세에 出産을 한다.

그럼 出産하는 月運의 달은?

艮宮 6 亥水를 생을 坎宮 9 申金과 乾宮 4 酉金이 있다. 9 申金은 大운과 小運에 이미 用했으니 乾宮 4 酉金의 생으로 節氣曆 9 月에 出産을 한다.

日辰은?

月宮인 乾宮 4 酉金과 三合되는 2 火는 암장수이니 이를 생을 하는 8 卯木의 日辰이 되는데, 10월 13일 乙未일, 10월 23일 乙巳일, 11월 2일 乙卯일 中 土生金이 되는 乙未일 10월 13일에 出産을 한다.

時辰은?

10월 13일 乙未일의 酉時는 離宮 7 火이므로 乙未를 火生土하여 出産의 時辰이 된다.

3.2.2 得女 26세 身數秘記 布局

〈그림 7〉 26세 1987년 10월 13일 身數 布局

身秘에서 첫 자녀의 出産을 하게 되느냐를 살펴보면 26세 신비에서는 世 8 묘목으로 첫 자녀의 時干은 艮宮의 4 酉金이 된다.

時干 4 酉金은 10 토 日干의 暗藏數에 있고, 세 8목의 암장수에 2 火가 있어 그대로 2·4·10 巳·酉·丑으로 삼합이 되어 있으니 26세 身數 運에 첫 자녀의 因緣이 있는 命造임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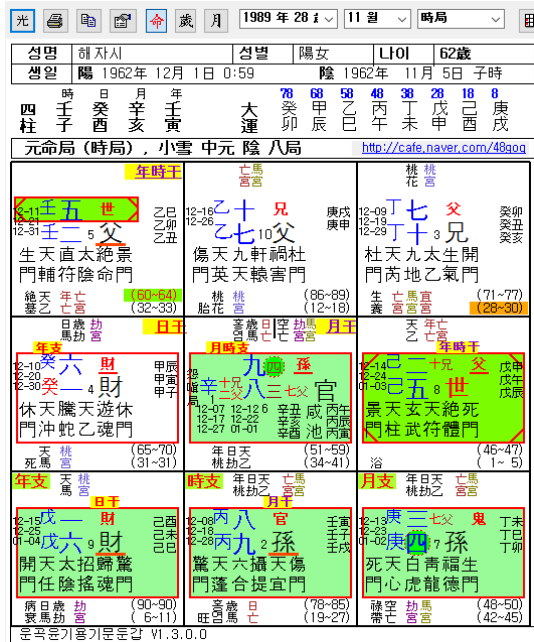
그럼 출산 월은?

暗藏數 2 火인 내가 巽宮 暗藏數 4 酉金인 時干을 合을 함에서 子息 運이 있는 것이니, 감곡 天盤 2 火는 8 卯木이고 8 卯木의 달 절기력 11월에 출산할 수 있으나, 弱하여 이를 왕성하게 하는 1, 6수가 되는데 이 또한 약하여 더 왕성하게 하는 7·5·9 삼살 7 火로 더해지나 이 또한 약하여 寅·午 合인 3 寅木의 달 9월에 출산한다.

暗藏數라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명확한 해단을 할 수 없음이요 이러한 암장수의 원리가 앞서 얘기한 운곡 기문의 우수(優秀)한 특징 중 하나가 된다.

3.3 得男 28세 양력 1989-12-9 巳時

3.3.1 得男 28세 元局秘記 布局



〈그림 8〉 28세 1989년 12월 9일 元秘 布局

28세 1989년 12월 9일 巳時에 둘째 子息으로 得男하였다. 둘째 아이에 해당하는 時支 9 申金은 世와 日干이 그대로 9·1·5 申·子·辰 삼합으로 되어 있어, 둘째 아이도 因緣이 있는 命造이다.

그럼 둘째 아이 출산의 大運은?

時支 9 申金은 1 子水로 變하였다. 1 子水는 中宮 암장수 10 土와 合이 되고 10 土는 6·8·10 亥·卯·未 삼합으로

中宮 8 卯木이 되었다. 그러니 時支의 대운은 8 卯木이다. 그래서 時支 둘째 아이의 대운은 6·8·10 亥·卯·未 삼합으로 10 土의 대운(28~30세)의 나이가 된다.

그럼 出産하는 小運의 나이는?

大運(28~30세) 6·8·10 亥·卯·未로 中宮 8 卯木의 나이 28세에 出産이 된다.

그럼 出産하는 月運의 달은?

中宮 8 卯木의 절기력 1월은 8·5 卯·戌함으로 가고 11월은 8 卯木이 2 火를 生을 하므로 절기력 11월이 된다. 日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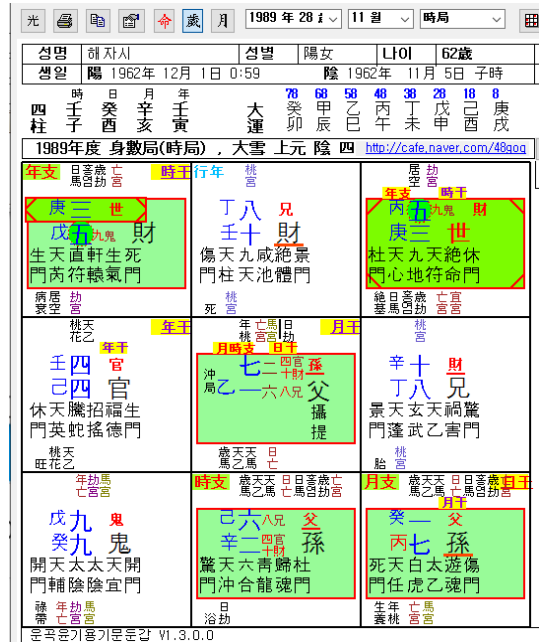
中宮 8 卯木의 6·8·10 亥·卯·未 삼합에서 10 土의 일진이 된다.

10 土의 일진 12월 9일 癸卯일, 12월 19일 癸丑일, 12월 29일 癸亥일 중 亥·卯·未와 연결되는 癸卯 일로 12월 9일에 출산을 한다.

그럼 時辰은?

坤宮의 10 土의 일진의 巳時는 태궁 5 土로 亦是 申·子·辰 삼합으로 1 水로 가니 출산의 時辰이 된다.

3.3.2 得男 28세 身數秘記 布局



〈그림 9〉 28세 1989년 12월 9일 身數 布局

身秘에서 둘째 자녀의 출산을 하게 되느냐를 살펴보면 28세 신비에서는 世 3 寅木으로 둘째 자녀의 時支는 坎宮의 2 巳火가 된다.

坎宮 時支 2 巳火의 암장수로 2·4·10 사·유·축이 모두 同宮임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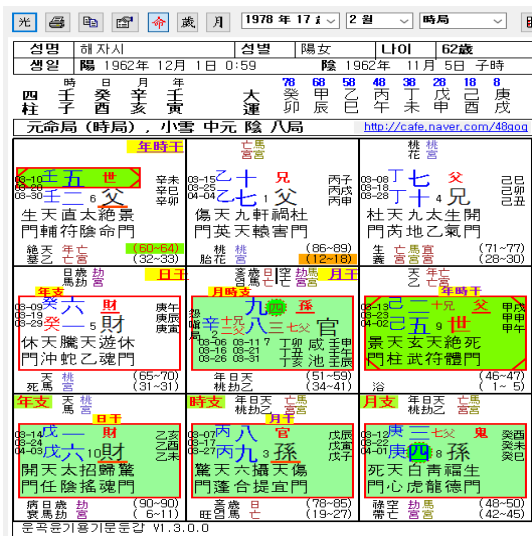
世 3 寅木은 3·7·5 寅·午·戌 삼합으로 7 午火로 가서 7·5·9 三殺로 가서 中宮의 隱伏數인 6 亥水를 생을 한다.

6 亥水는 다시 世인 3 寅木을 흡을 하니 제자리가 되고 다시 돌아 7·5·9 三殺로 가서 中宮의 隱伏數인 6 亥水를 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6 亥水의 暗藏數 8 卯木을 생을 하게 되고, 8 卯木은 巽宮의 5 土를 흡을 하면 5 土는 이제 時支 2 火의 暗藏數로 있는 4 酉金을 흡을 하게 되어서 둘째 자녀의 出産을 하게 되는 運이 있음이다.

8 卯木이 4 酉金과 합이 된 5 土를 흡을 함으로 出産함이니, 坎宮 天盤 6 亥水의 暗藏數로 있는 8 卯木이 5 土를 흡을 하는 것이니 節氣曆 11월에 出産을 한다.

3.4 부친 유고 17세 1978년 3월 25일. 卯月

3.4.1 부친 유고 17세 元局秘記 布局



<그림 10> 17세 1978년 3월 25일 元秘 布局

父親에 該當하는 年干 2 火는 中宮의 생을 받고 居旺은 하지만 絕命, 雙亡身으로 凶하다. 年干 2 火는 半合 酉金으로 變하여 酉金에 吉드니 7 火의 旺을 받을 때 父親은 凶함이 된다.

12~18세의 대운은 7 火 大運으로 7 火는 7·5·9 삼살로 6 亥水를 생을 하고 3, 8 木을 생을 하여 제자리 7 火가 되어 4, 9 金을 旺을 하니 酉金에 吉드니 年干 2 火는 凶함으로 부친의 有故가 남이다.

小運의 나이는 7 火를 合生을 하는 3 寅木의 13세도 부친은 凶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운과 동일한 7 午火의 17세에 유명(幽明)을 달리하였다.

月運은?

월운은 7 火를 생을 하는 3 寅木의 節氣曆 7월과 8 卯木의 2월에서 7 火를 생을 하는 寅申 달인 8 卯木의 節氣曆 2월이 된다.

卯월의 日辰은?

달 8 卯木이 7 火를 생을 함에서 7 火가 된 가운데, 日辰은 그대로 離宮의 7 火의 일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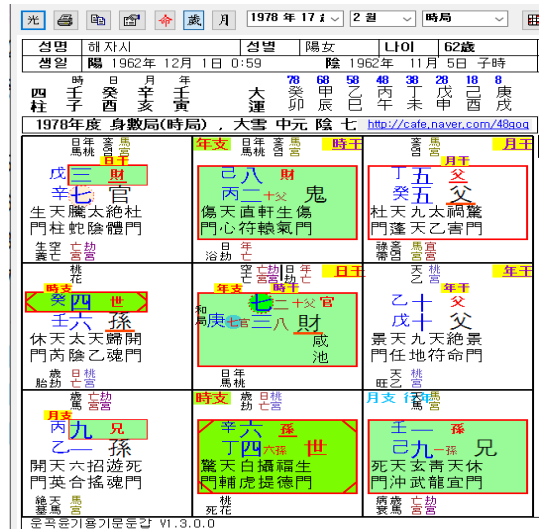
양력 3월 15일 丙子일,

양력 3월 25일 丙戌일,

양력 4월 4일 丙申일 중

寅·午·戌 삼합으로 되는 丙戌일 3월 25일이 된다. 丙戌의 5 土는 3·7·5 寅·午·戌 삼합으로 7 火를 더욱 旺盛하게 함이다.

3.4.2 부친 유고 17세 身數秘記 布局



<그림 11> 17세 1978년 3월 25일 身數 布局

17세 身秘에서 부친의 凶함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17

세 身秘에서는 世 坎宮 4 酉金은 먼저 世宮의 暗藏數 6 亥水로 가서 6 亥水는 中宮의 日干 3 寅木으로 먼저 간다. 암장수 7 火는 空亡이나 일간 3 寅木과 합생 됨에 空亡은 사라진다.

17세 身秘에서 父親은 兌宮의 10 土이나 非動處라 離宮 2 火의 暗藏數로 있고, 10 土는 2·4·10 巳·酉·丑 삼합으로 4 酉金이 되었다. 곧 世 4 酉金이 된 것이다.

앞서 얘기한 7 火는 돌고 돌아 7 火 亥 4 酉金을 하게 되어 운명(殞命)하였다.

그럼 17세의 월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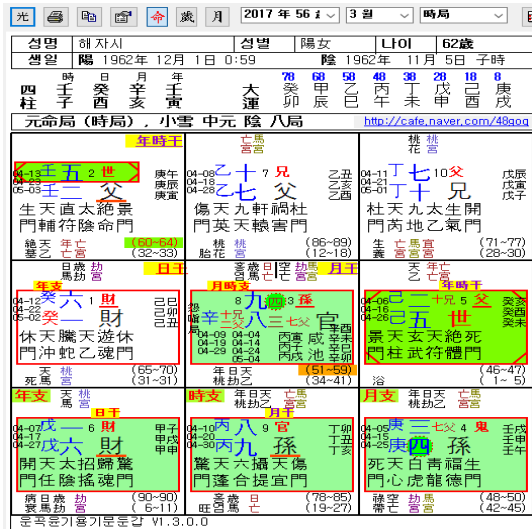
앞서 얘기한 7 火는 돌고 돌아 7 火 亥 4 酉金을 하게 되는 것은 지반 홍국수로 해단을 한 것이고 이를 시간적 일을 확인하는 것은 친반의 洪局數로 보는 것이 운곡 기문의 원리인 것이다.

그래서 운명(殞命)의 달은 7 火 亥 4 酉金을 하는 절기력 묘월이 된다.

원비와 신비 모두 17세에 유명(幽明)을 달리한 사실을 해단할 수가 있다.

3.5 媳父의 有故 56세 양력 2017.5.1

3.5.1 媳父 有故 56세 元局秘記 布局



〈그림 12〉 56세 2017년 5월 1일 元秘 布局

媳父의 有故 56세 양력 2017. 5. 1. 일에 일어났다. 시아버지는 남편 中宮 8 卯木을 생을 하는 6 亥水가

된다. 6 亥水는 6·8·10 亥·卯·未 삼합으로 8 卯木이 된다.

시아버지가 8 묘목이 되었으니 착하고 온순하고 좋게 보인다. 그러나 5 토를 습하여 4 酉金을 습하기 때문에 반대의 성품으로 나온다.

남편인 8 卯木이 4 酉金과 습이 된 5 토를 습을 함에서凶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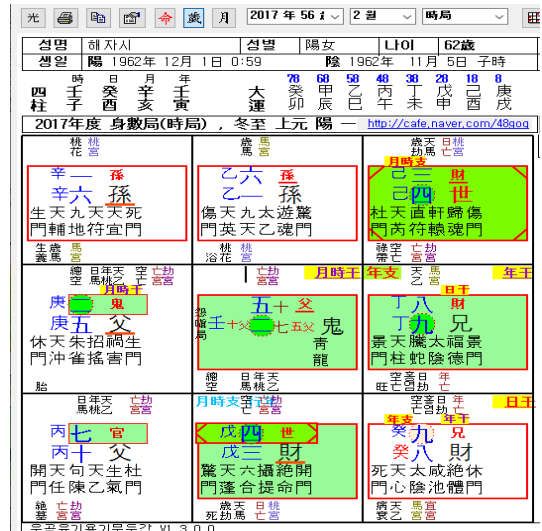
대운 78~85세의 8 卯木 대운에 앞서 8 卯木을 생을 하는 1, 6 水 대운도凶함이나 이를 생을 하는 앞선 대운 51~59세에 9 申금이 1, 6 水를 생을 하여 8 卯木에서 시아버지 8 卯木은 4 酉金과 습이 된 5 토를 습을 함에서 별세(別世)하게 된다.

대운 9 申금이 1, 6 水를 생을 하여 8 卯木이 된 가운데, 나이는 8 卯木을 생을 하는 1, 6 水 중에서 8 卯木과 습이 되는 6 亥水の 56세가 된다.

월운의 달은 나이 6 亥水를 생을 하는 4, 9 金과 7 午火 중에서 가장 빠른 달인 4 酉金の 節氣曆 3월이 된다.

달 3 寅木이 6 亥水를 생을 하는 가운데, 일진은 6 亥水를 왕성하게 생을 하는 7 午火의 양력 5월 1일로 戊子일이 된다. 戊子의 1 子水는 3 寅木을 생을 하여 3·7·5 寅·午·戌 삼합으로 弱한 일진 7 午火를 왕성하게 한다.

3.5.2 媳父 有故 56세 身數秘記 布局



〈그림 13〉 56세 2017년 5월 1일 身數 布局

56세 身秘에서 시아버지의 흉함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56세 身秘에서는 世 坤宮 4 酉金이고, 남편은 2 巳火이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乾宮인 日干의 8 卯木이 되어 8 卯木은 5 土를 흡수 하여 4 酉金을 흡수 하게 된다. 그래서 3·7·5 寅·午·戌 삼합 9·1·5 申·子·辰 삼합으로 水克火하고 남은 4 酉金이 8 卯木을 뺀을 하니 媿父가 별세(別世)하게 되었다.

그럼 56세 때 월운은 신비 포국에서 8 卯木이 5 土를 흡수 하면서 일이 일어남이니 兌宮 8월이 된다. 이보다 앞선 달을 찾으면 8 卯木을 생을 하는 1 子水의 3, 4월과 6 亥水 5월인데 1 子水의 흡수는 중국 10 土와 흡이 되어 6·8·10 亥·卯·未로 8 卯木으로 오니 3월이 된다.

원비와 신비로 본 시아버지의 인연은, 본 곤명의 가정사에서 육군 중령으로 30여 년 군 복무를 마치고, 연금수령을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받아 자식들에게 경제적 교훈을 주고 간 명조로 충분히 성품을 가름할 수 있었다.

56세 때 媿父가 별세(別世)한 사실 또한 癸酉일 壬子시로 명조를 만들어야만 기문둔갑의 올바른 해단이 이루어져 醉吉避凶의 동양철학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명조와 기문 포국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섯 가지 인생 사건을 통해 자시(子時)와 해시(亥時)의 시진 조정을 진행해 보았다. 위 분석사례에서는 癸酉일 壬子 시만을 남겨 놓았으나, 壬申일 辛亥 시를 함께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자시(子時)에서는 해단(解斷)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 해시(亥時)로는 명확한 해단이 어려웠다. 이를 통해 역학에서 시진(時辰)이 인생의 흐름을 살펴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기문둔갑의 시진 조정법이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문학은 객관화할 수 있는 수리적 방법론을 이용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는 홍국수(洪局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역학 기법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리적(數理的) 증명이 가능한 운명술(運命術)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생사 다섯 가지의 큰일을 사주팔자만으로 천기누설에 가까운 해단을 할 수 있음은

“시운(時運)은 일운(日運)에 귀속(歸屬)되고,
일운(日運)은 월운(月運)에 귀속(歸屬)되고,
월운(月運)은 소운(小運)에 귀속(歸屬)되고,
소운(小運)은 대운(大運)에 귀속(歸屬)되고,
대운(大運)은 세운(世運)에 귀속(歸屬)된다.”¹⁷⁾

라는 운곡 기문(雲谷奇門)의 해단 원리를 활용하였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4. 결론

동양 운명학에서 핵심 주제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주(四柱)와 시주(時柱)에 대한 중요도를 검증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가 아닌 진태양시(眞太陽時)를 역학에서 왜 꼭 사용해야 하는가를 논증하고, 오랜 시진의 논쟁이었던 야지시에 대한 논점, 그리고 탄생한 태시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어서 기문둔갑의 포국을 이용한 시진(時辰) 조정법이 실제 간명 현장에서 어떤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도 분석사례를 통해 입증해 보았다.

연구자는 시진의 사용에 있어서 역학적으로는 시간의 사회적 통용성이 아니라 우주(宇宙)의 중심인 내가 태어난 그 우주(宇宙)의 시간과 공간이 내 명(命)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내가 태어난 장소의 경도(經度)를 사용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간과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나 본인의 시진(時辰)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간지기시(干支紀時)에 있어서 하루 시진은 우주의 기운이 반 시진, 즉 한 시간을 앞서 ‘기미(機微)와 징조(徵兆)’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며, 현재 전 세계 그리고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하루의 시작은 매일 0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역학적 입장에서 하루의 기운이 한 시간 앞서 오는 기미와 징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야자시(夜子時)법보다 정자시(正子時)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자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나만의 고유한 사주는 우주의 시간에 해당하는 시진을 확인해야 하므로, 내가 이 세상에 첫울음을 낸 그때를 태시(胎時)로 삼고, 한국 표준시를 사용하면서 태어난 장소와 경도를 통해 진태양시를 계산하여 사주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 제도상으로는 야자시법을 써야 하므로 이를 체(體)로 삼지만, 운명 학술적으로는 정자시법을 실질적인 사용으로 삼아 용(用)해야 한다.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나의 명조를 정립하는 데 있어

17) 이청하(2023), 『기문둔갑으로 보는 혼인 택일법의 사례분석』, 산업진흥연구원, 132쪽.

서 나의 우주 시간을 체(體)로 인식하고, 한국의 표준시를 실질적으로 용(用)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하며 시진과 시주의 객관화를 위해 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로써 시진(時辰)과 시주(時柱)와 관련된 세 가지 논점을 재정립함으로써 한 개인의 명조가 더욱 정확하게 상담에 활용되고 미래예측의 적중률 또한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해 운곡기문(雲谷奇門)의 정교(精巧)함과 명철(明徹)하며 명정(明正)함이 이러한 시간에 대한 원리와 개념이 선행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운곡(雲谷) 기문학에서의

“세운(世運)에 대운(大運)이 귀속(歸屬)되고, 대운(大運)에 소운(小運)이 귀속(歸屬)되고,”¹⁸⁾
 “소운(小運)에 월운(月運)이 귀속(歸屬)되고, 월운(月運)에 일운(日運)이 귀속(歸屬)되고,¹⁹⁾
 “일운(日運)에 시진(時辰)이 귀속(歸屬)된다.”²⁰⁾

라는 통기(通氣)의 해단(解斷) 원리로 해단하였기에 가능하였다.

References

- [1] 계연수 편저, 이유립 현토,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2012.
- [2] 권갑현, 『명문 컴퓨터 절기 만세력』, 명문당, 2020.
- [3] 김만태, 신동현,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관한 논점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5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 [4] 류명성, 『朝鮮 後期 千歲曆의 曆法 原理 研究 : 正祖 時憲曆 『千歲曆』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2020.
- [5] 민재홍 작사, 민재홍 작곡, 가람과피 노래, “생일”, 제일 음반, 1978, 음반.

18) 이청하(2023), 『기문둔갑으로 보는 혼인 택일법의 사례분석』, 산업진흥연구원, 122쪽
 19) 이청하(2023), 『기문둔갑으로 보는 혼인 택일법의 사례분석』, 산업진흥연구원, 122쪽
 20) 이청하(2023), 『기문둔갑으로 보는 혼인 택일법의 사례분석』, 산업진흥연구원, 122쪽

- [6] 박석재,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원리』, 동아엠앤비티, 2019.
- [7] 송병섭, 『子平命理學의 子時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2018.
- [8] 유안 저, 안길환 역, 『회남자(淮南子)(上)』 『천문훈(天文訓)』, 명문당, 2021.
- [9] 이울형, 4천년전 BC2096년 동이족 1년...365일 5시간 48분 46초, 스카이데일리, 2015-03-07,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2715.
- [10] 이청하, 『기문둔갑으로 보는 혼인 택일법의 사례분석』, 산업진흥연구원, 2023.
- [11] 윤기용, 『운곡 기문둔갑 길라잡이』, 도서출판 생각나눔, 2019.
- [12] 한동석, 『宇宙 變化의 原理』, 대원출판사, 2013.
- [13] 『時憲曆』.
- [14] 『千歲曆』.

이 청 하(Lee, Cheong-Ha)



- 1988년 2월 : 계명대학교 졸업
- 2021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동양학석사)
- 2021년 2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박사과정
- 2012년 3월~현재 : 소밭밥나무약초 연구원장
- 관심분야 : 동양철학, 기문둔갑, 천부경, 육임, 약초, 상고사
- E-Mail : rm005@hanmail.net

신 순 옥(Shin, Sun-Ok)



- 2011년 2월 :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12년 2월 : 서울시이비대 심리학과 (심리상담사)
- 2015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2018년 8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관심분야 : 명리학, 타로, 별자리, 아로마, 관상, 명상, 치유
- E-Mail : leif3713@hanmail.net